

고령화 사회 농촌 노인의 노동과 여가의 시간 배분

Allocation of Time between Work and Leisure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 수 이 기 영**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 수 조 희 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숙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부 교 수 이 승 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 수 홍 두 승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조 흥 식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시간강사 김 유 경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 소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 사 정 수 인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 Lee, Ki-Young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 Prof. : Cho, Hee-Keum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 : Kim, Oi-So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 : Lee, Yon-Suk

Dept. of Seniors Welfare, Woosuk Univ. Associate Prof. : Lee, Seung-Mi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 Prof. : Hong Doo-Seung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 Prof. : Cho, Heung-Sik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Instructor : Kim, Yu-Kyung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Kim, So-Young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Master : Jeong, Soo-In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온라인게임서비스 소비자 피해
실증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 III. 온라인게임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 |
| IV.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2005 농업특정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 이기영 (leek@snu.ac.kr)

*** 교신저자 : 조희금 (hkcho@daeg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llocation of time between work and leisure by the rural elderly in Korea.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farm households during the peak (17th to 30th June) and off-peak (28th November to 10th December) farming seasons of 2005 using time diary.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s of 120 elderly over 65 years old living in rural area in eight provin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time spent of farm work by rural elderly is much longer than average work hours of elderly in general regardless of farming season. This indicates that the elderly farmers are the sustaining forces of agriculture as the urban industrial sector absorbs the younger labor force rural area. (2)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work time(including farm work, housework, and farm work plus house work) by 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s. (3) The rural elderly spends less time in leisure compared to the elderly in general even during the off-peak season. (4) Especially during the peak season, time allocation between work and leisure by the rural elderly is heavily skewed, resulting in an inadequate amount of time for reproduction of labor. (5) There is only significant age difference in the amount leisure time regardless of farming season. (6) Male elderly farmers work approximately 30 minutes to 1 hour longer on farm than the females do, but the total work time (farm work plus housework) of female elderly is longer than that of the male elderly. There i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amount of leisure time during the peak season, whereas the men have more leisure than the women during the off-peak season.

To conclude, the gender differences in time allocation among the rural elderly are minimal. However, the rural elderly of both genders suffers from excessive work hours and heavy workload compared to the urban counterpart.

Key Words : 농촌 노인의 노동(work of the rural elderly), 농촌 노인의 여가 (leisure time of the rural elderly), 농촌 노인의 노동과 여가의 시간 배분(allocation of time between work and leisure time by the rural elderly)

I.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도시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2004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농촌지역 15.6%, 도시지역 6.7%로 농촌이 도시보다 약 2.3배 높았으며(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 농가만을 보았을 경우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촌의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노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들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5)의 농촌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농촌 노인들의 소득수준, 재가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수준이 도시만 못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도시 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복지 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많은 농촌 노인들이 경제, 의료, 사회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도시 노인들에 비해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농림부, 2002).

생애기간은 늘어나는데 정년은 오히려 빨라짐으로써 노인 취업이 첨예한 이슈가 되는 도시 노인과는 달리 농촌 노인들은 농업의 특성상 정년의 개념 없이 오랫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이 농촌노인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년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농촌 노인에게 과연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농사일 참여 동기나 참여시간 등과 같은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것이다. 실제 이정화와 한경혜(2003)의 연구 결과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농사일 참여가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하는 너무 고된 일 이면서 대가가 적은 일이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즉 노년기로 갈수록 자신이 하는 일이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순수한 ‘근로’이거나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여가’일 때 만족감은 더 커지게 된다(김애순, 2002). 따라서 노인의 농사일 참여나 여가활동 참여는 자발성 여부나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인지 등에 따라 만족감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노동과 여가의 두 가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실제 시간 사용 패턴이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시간 사용 연구는 사회적 지표의 하나로서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제까지 노인의 여가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도시 노인과 다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 노인만을 대상으로 노동과 여가 시간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노인 활동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이루는 ‘노동’과 ‘여가’를 중심으로 각각의 시간 사용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농촌 노인의 노동

노년기에 있어서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소득을 확보하여 생계유지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역할상실에서 오는 상실감을 치료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이정화·한경혜, 2003).

도시와 농촌 노인을 비교해 보면 도시 노인에 비해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2000년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8%로 도시노인의 11.4%보다 3배가량 높으며, 취업노인 중 90.9%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농촌 노인의 농사일 참여율은 높은 편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7)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9%가 넘는 노인이 농사일에 종사하며,

농림부(2002)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절반가량이 농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노인들의 높은 경제활동이 생활의 만족감을 높여주는지 여부는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김익기(1999)는 노인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심리적인 이유로 나눠 살펴본 결과 노인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일한다고 하였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이 전국 노인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게 취업이 필요한 이유 중 ‘돈이 필요해서’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의 비중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숙자, 1999). 농림부(2002) 조사에서 농촌 노인들이 농사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약 49만원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노인은 농업 이외의 뚜렷한 소득원이 없어 농사일 참여가 불가피한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유 외에 ‘농촌의 일손 부족’도 농사에 참여하는 이유의 하나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중돈·조주연, 2000; 이수애·이경미, 200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일손 부족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농사일에 참여하게 될 때 만족감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정화·한경혜(2003)는 노년기의 경제활동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달리 농촌 노인들의 농사일 참여는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농사일이 농촌노인에게 노년기 생산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해야만 하는 일’로서 비자발적인 측면

이 부각되거나 농촌 노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고된 일이면서 그 대가는 너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순덕·한경혜(2004) 역시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 보상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심리적 복지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혀냈다. 농림부(2002)의 조사에서도 농촌 노인은 농업에서의 어려움으로 힘든 농사일과 과노동을 가장 높게 꼽았다.

한편 농촌 노인의 생산활동에는 농사일 참여뿐 아니라 가사노동도 포함되는데, 주거시설이 불편하고 가전제품이 부족한 농촌에서 가사노동은 남녀 노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노인에게는 평생을 다른 가족원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해왔던 일이고, 남성 노인에게는 노년기에 들어 배우자와 가사일을 공유하거나 배우자 사망시 전적으로 수행해야 할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윤순덕·한경혜, 2004). 특히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농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집안일을 전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양순미, 2001)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농사일 참여와 더불어 가사노동의 수행이라는 이중 노동의 부담을 안게 된다. 선행 연구 결과도 농촌에서는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남편은 자녀양육이나 교육, 장보기, 청소 등에 약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1997; 농촌진흥청, 19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2. 농촌 노인의 여가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려는 고독하고 따분한 노력”이라 인식되고 있다(Kelly, 1993). 그러나 노년기의 여가는 일하고 잠시 쉬는 여가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생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가활동을 어떻게 생활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김애련·한내창, 1997; 박미석, 2002, 홍성희, 1998). 실제 노년기의 여가활동 참여는 생활만족도,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준다(Kelly et al., 1987; 원형중, 1994; 이정화·한경혜, 2003). 또한 노년기에 촉발되는 경제적 문제와 신체적, 심리적 소외감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노후의 적응은 물론 만성화된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박미석·이유리, 2003). 특히 노부부만 살거나 노인인 부모와 역시 노인인 부양자녀가 사는 노인단독가구,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농촌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과 달리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에게 여가시간은 의무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원기를 회복하는 동시에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 노인들은 여가시간에 적극적으로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대부분 집에서 소일하거나 TV시청, 라디오 청취, 노인정에 나가기 등의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그치고 있다(박미석·이유리, 2003). 이러한 특징은 농촌 노인의 여가시간활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농림부, 2002; 보건복지부, 2001).

농촌 노인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픈 욕구가 있지만 여가활동의 기회가 없거나 문화공간이나 운동시설 등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보건복지부, 2001; 이정화·한경혜, 2003).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여가활동을 원하더라도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여가를 즐길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정화·한경혜(2003)의 연구에서 농촌 노인들은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으로 여가활동을 50%, 경제활동을 37%로 꼽아 경제수준이 여가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활시간 사용과 삶의 질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먹고, 자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여가를 즐기는 일상으로 가득 차 있다. 즉 개인유지-일-가족-여가로 구성된 생활시간의 사용패턴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김진욱, 2006). 따라서 생활시간조사는 보건, 경제활동, 가족생활, 교제 생활, 여가 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생활시간조사는 이제까지 통계자료들의 경제지표 지향성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생활, 여가의 균형정도나 교통시설 및 도시시간간시설 편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어 복지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손애리, 2000). 실제로 외국의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집밖에서 보내는 여가활동보다 TV를 시청하거나 낮잠을 즐기는 등의 집안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제공되는 여가상품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손애리, 2000). OECD에서도 삶의 질을 표시하는 사회적 관심체계 영역으로서 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안정 등 8개 분야를 제시해 삶의 질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중요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ECD, 1982).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축이 되는 “노동”과 “여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농촌노인의 노동과 여가시간 사용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국 노인의 시간 사용과의 비교를 병행하였다.

<연구문제 1> 농촌노인의 노동시간사용패턴은 어떠한가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농촌노인의 여가시간사용패턴은 어떠한가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3> 농촌 남녀노인의 노동과 여가에의 시간배분구조는 어떠한가?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농업진흥청의 특정연구과제인 ‘농업인 삶의 질 수준 측정 및 복지정책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농촌 가족원들의 생활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농번기와 농한기 2회에 걸쳐 수집한 생활시간 조사 자료 중 만 65세 이상 농촌 노인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소재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8개 농촌 지역에서 주 작목별로 미맥 20가구, 시설원에 10가구, 축산 10가구, 과수 10가구의 비율로 각 지역별 50가구씩 40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1

차 조사 대상가구를 패널로 하여 동일 가구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농번기 조사)는 2005년 6월 17일~6월 30일(2주간)에, 2차 조사(농한기 조사)는 동년도 11월 28일~12월 11일(2주간)에 실시되었다. 농번기, 농한기에 모두 수집된 자료만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시간일지표를 기록한 400가구의 10세 이상 가족원 총 941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남자노인 51명, 여자노인 69명으로 총 120명이다.

본 조사는 시간일지표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전국 노인의 노동 및 여가시간은 통계청에서 2004년 9월 실시한 제2차 생활시간조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시간일지표는 10분 단위로 조사 대상자가 사용한 시간을 대상일의 새벽 0시부터 그 다음날 24시까지 2일간 기록하게 하였으며, 주 행동만 기록하였다. 조사된 행동의 분류는 통계청의 행동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농업 행동에 대해서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농업행동분류를 토대로 새로 작성한 농업행동분류표(조희금 외, 2006)에 의거하여 분류하였으며, 시간자료의 분석에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였다. 시간사용실태 및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비교를 위해 평균, t검정, 일원분산분석, Duncan 사후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4. 조사 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n=120)	남	51(42.5)	학력 (n=120)	무학	51(42.5)
	여	69(57.5)		초졸	58(48.3)
연령 (n=120)	65-69세	63(52.5)		중졸	3(2.5)
	70-74세	24(20.0)		고졸	8(6.7)
	75-79세	23(19.2)	건강상태 (n=120)	장애 있음	4(3.3)
	80세 이상	10(8.3)		질병 있음	58(48.3)
평균	71.1세	장애, 질병 모두 있음		13(10.8)	
		장애나 질병 없음		36(30.0)	
혼인상태 (n=120)	유배우	81(67.5)	주작목 (n=116)	모름	9(7.5)
	사별	39(32.5)		미백	67(57.8)
가구형태 (n=120)	노인단독	6(5.0)		원예	13(11.2)
	노인부부	37(30.8)		과수	16(13.8)
	자녀동거	73(60.8)	축산	20(17.2)	
	조손자녀	4(3.3)			

성별은 여자가 57.5%로 남자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71.1세로 60세 후반인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42.5%가 무학, 48.3%가 초졸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67.5%가 유배우이며, 32.5%는 사별한 상태였다. 가구형태는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60.8%, 노인부부가구가 30.8%로 두 가구 형태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62.4%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었다. 주작목의 경우 절반 이상이 미백이며, 다음으로 축산, 과수, 원예의 순이다.

IV. 연구결과

1. 농촌 노인의 노동

1) 농촌 노인의 총노동시간

농촌 노인들의 총노동시간은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포함하는데, 농업노동은

절기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농번기와 농한기로 나누어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에의 시간배분을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면 노인들은 농업노동과 농업 외 노동 모두 농번기와 농한기에 차이를 보였는데, 농업노동은 농번기에 더 많은 반면 농업 외 노동은 농한기에 더 많았다. 그런데 농업노동이 농업 외 노동보다 훨씬 많으므로 농업노동과 농업 외 노동을 합한 수입노동시간은 농번기에 7시간 4분, 농한기에 2시간 36분으로 농번기가 농한기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농업노동은 재배·사육 및 생산과 수확·선별·포장의 두 가지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활동별 시간양도 절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농번기에는 재배·사육 및 생산시간이 5시간 45분인데 반해 농한기는 53분으로 농번기의 농업활동의 대부분이 재배·사육 및 생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에 비해 수확·선별·포장시간은 농번기가 59분, 농한기가 1시간 5분으로 농한기가 오히려 더 길어

농한기의 주된 농업활동은 수확·선별·포장 임을 보여 준다. 즉 농번기는 재배·사육 및 생산시간이 농업시간의 83%를 차지하고 수확·선별·포장시간이 14%를 차지하는데 반해,

농한기에는 수확·선별·포장시간이 50.4%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농업노동의 반 이상이나 되었다. 반면에 판매 및 경영이나 농업교육 및 사회참여 등과 같이 보다 높은 수준의 능

〈표 2〉 농촌 노인의 노동시간

시간: 분

행동분류		농촌 노인						전국 노인		
		농번기			농한기					
대분류	중분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수입노동시간		7:04	7:21	6:51	2:36	3:18	2:05	1:53	2:25	1:32
농업	외 노동	0:09	0:07	0:11	0:27	0:31	0:24	-	.*	.*
	고용된 일 및 자영업	0:04	0:04	0:04	0:10	0:14	0:08	-	-	-
	기타 일	0:05	0:03	0:07	0:17	0:17	0:17	-	-	-
농업	노동	6:54	7:14	6:40	2:09	2:47	1:41	-	-	-
	재배, 사육 및 생산	5:45	6:04	5:31	0:53	1:29	0:26	-	-	-
	수확, 선별, 포장	0:59	0:55	1:02	1:05	1:04	1:06	-	-	-
	판매 및 경영활동	0:01	0:01	0:01	0:04	0:08	0:01	-	-	-
	농업 부업	0:08	0:13	0:04	0:02	0:04	0:00	-	-	-
	농업교육 및 사회참여	0:00	0:00	0:01	0:01	0:00	0:01	-	-	-
	기타 농업 관련 일	0:01	0:01	0:01	0:05	0:02	0:07	-	-	-
가사노동시간		1:11	0:21	1:49	2:53	1:37	3:50	2:19	0:59	3:12
가정	관리	1:08	0:15	1:46	2:49	1:32	3:45	2:05	0:47	2:57
	음식준비 및 정리	0:34	0:07	0:54	1:33	0:30	2:20	1:06	0:14	1:40
	의류 관리	0:10	0:01	0:18	0:11	0:01	0:18	0:16	0:02	0:25
	청소 및 정리	0:14	0:05	0:20	0:24	0:11	0:34	0:28	0:15	0:36
	집 관리	0:06	0:00	0:10	0:08	0:14	0:04	0:07	0:10	0:06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0:01	0:00	0:03	0:10	0:11	0:09	0:07	0:04	0:09
	가정경영	0:00	0:01	0:00	0:02	0:04	0:00	0:01	0:02	0:01
기타 가사일	0:02	0:02	0:02	0:21	0:22	0:20	0:00	0:00	0:00	
가족	보살피기	0:04	0:05	0:03	0:05	0:04	0:05	0:14	0:12	0:14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0:02	0:04	0:01	0:03	0:03	0:03	0:07	0:06	0:08
	초·중·고생 보살피기	0:01	0:00	0:01	0:01	0:01	0:00	0:01	0:01	0:02
	배우자 보살피기	0:00	0:00	0:01	0:00	0:00	0:00	0:03	0:03	0:02
	부모·조부모 보살피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그 외 가족 보살피기	0:00	0:00	0:00	0:01	0:00	0:01	0:03	0:02	0:03
합 계		8:15	7:42	8:39	5:30	4:55	5:55	4:12	3:24	4:44

*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에서는 '농업노동'과 '농업 외 노동'을 분류하고 있지 않아 수입노동의 세부항목별 비교는 하지 않음.

력을 요구하는 농업 활동에는 농촌 노인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남녀로 나누어 농촌노인들의 농업시간을 보면 농번기 농업노동 시간은 남자 7시간 14분, 여자 6시간 40분으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34분 많으며, 각각 하루 24시간 중 30.1%와 27.8%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농한기에는 농업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남자는 2시간 47분, 여자는 1시간 41분을 농업노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농업시간의 차이는 남자는 4시간 27분, 여자는 4시간 59분으로 여자 노인의 경우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남녀 노인 간의 농업노동의 시간 차이가 농번기 때 보다 농한기에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별로 보면 농업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배·사육 및 생산 시간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훨씬 길었으나 수확·선별·포장시간은 여자노인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나 여자노인이 수확이나 선별 및 포장작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한기 때는 여자노인의 수확·선별·포장시간이 농업노동시간의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작업에 있어서의 노인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농업 외 노동은 절기에 비해 남녀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농번기에는 여자노인이, 농한기에는 남자노인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노동과 농업 외 노동을 합친 수입노동시간을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과 비교해 보면 농촌 노인의 노동부담의 과중함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04년에 실시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¹⁾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수입노동시간이 남자 2시간 25

분, 여자 1시간 3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간양은 농촌 노인이 전국의 노인에 비해 농번기에는 남자 4시간 56분, 여자 5시간 19분이 나 많고, 농한기에도 남자 53분, 여자 33분이 더 많은 것이다. 이는 정년이 없는 농업노동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며,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산업노동으로 흡수됨으로써 농업이 노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촌 노인의 이러한 노동량은 노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전국 노인의 노동량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 노인의 과도한 노동은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5)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 노인의 월평균소득이 39만7천원으로 도시 노인(52만9천원)의 75%이며, 월평균 용돈도 10만4천원으로 도시 노인(14만7천원)의 7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들의 낮은 소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사노동을 보면 농번기에는 1시간 11분, 농한기에는 2시간 53분으로 수입노동시간과는 반대로 농한기가 농번기보다 1시간 42분 길게 나타나 농한기에 줄어든 농업노동시간의 일부를 가사노동시간에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볼 경우 대부분의 시간이 가정관리활동에 할애되었으며,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절기에 따른 차이가 없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므로 보살피야 하는 어린자녀가 없는 노인부부나 노인단독가구, 또는 3세대가 동거하는 가구가 많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표 1> 참조).

남녀로 나누어 보면 남녀노인 모두 농번기보다 농한기에 가정관리시간이 많았으며, 그

1)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표집대상자 중 농촌노인의 비율은 우리나라 거주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라 표집 되었으므로 대략 7.1%라고 볼 수 있다.

차이가 남자 노인은 1시간 17분, 여자노인은 1시간 59분으로 여자노인의 경우에 절기에 따른 가정관리 시간의 증가분이 더 컸다. 영역별로 보면 남녀 노인 모두에 있어 음식준비 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그 외에 청소 및 정리, 물품구입, 기타 가사일이 증가하였다. 집관리는 남자 노인의 경우에만 증가하였다.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합한 가사노동 시간은 농번기에는 남자노인이 21분, 여자노인 1시간 49분, 농한기에는 각각 1시간 37분, 3시간 50분이다. 이를 남자 노인 59분, 여자노인 3시간 12분으로 나타난 전국 노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비교하면 농번기에는 농촌 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적지만 농한기에는 남녀 노인 모두 농촌 노인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사노동시간도 농촌 노인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 시간의 차이

농촌 노인의 노동시간의 패턴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를 보았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농촌노인의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 가구형태,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노동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주작목별로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²⁾.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수입노동시간은 농한기에 있어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의 수입노동시간이 농번기에 여자노인보다 긴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

다 길었다. 가사노동시간의 유의한 차이로 인해 총노동시간이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p <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노인의 총노동시간이 남자노인보다 많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농한기 수입노동시간에서만 $p < .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무학인 노인보다 초졸이상인 노인이 수입노동시간이 약 1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한기에는 농번기보다 농업 외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농번기에는 수입노동시간과 총노동시간에서 각각 $p < .01$ 수준과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그리고 농한기에는 총노동시간에서 $p < .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입노동시간과 총노동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인데 연령대간의 차이를 보면 농번기와 농번기 모두 수입노동시간과 총노동시간은 65-69세의 노인이 75-79세와 80세 이상 노인보다 각각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보인 수입노동시간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농한기의 수입노동시간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수입노동시간이 1시간 이상 많았다.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는 농번기의 총노동시간에서만 $p <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노인단독가구가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긴 노동시간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이 가구를 영위해나가기 위해 혼자 사는 노인에게 보다 많은 농업노동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본 연구에서는 시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유의도 기준을 $p < .1$ 로 하였는데, 시간과 같이 변수의 값이 정확할 때는 유의수준을 $p < .1$ 로 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상태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는 수입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데 반해 농한기의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그 차이

가 의미 있게 나타나 장애나 질병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가사노동 시간이 $p<.1$ 수준에서 유의하게 더 길었다. 이는

〈표 3〉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

시간: 분

구 분	농번기			농한기						
	총노동시간	수입노동 시간	가사노동 시간	총노동시간	수입노동 시간	가사노동 시간				
성별	남자(51)	7:42	7:21	0:21	4:55	3:18	1:37			
	여자(69)	8:39	6:51	1:49	5:55	2:05	3:50			
	t값	-1.835*	.854	-6.609***	-1.675*	2.130*	-4.887***			
학력	무학(51)	8:14	7:07	1:07	5:17	2:01	3:15			
	초졸이상(69)	8:15	7:01	1:14	5:39	3:02	2:37			
	t값	-.045	.148	-.429	-.605	-1.744+	1.201			
연령	65-69세(63)	9:17	b ³⁾	8:02	b	1:16	6:21	c	3:02	3:19
	70-74세(24)	7:58	ab	6:34	ab	1:24	5:40	bc	2:45	2:56
	75-79세(23)	6:24	a	5:40	a	0:45	3:28	a	1:17	2:12
	80세 이상(10)	6:36	a	5:22	a	1:15	4:17	ab	2:34	1:43
	F값	8.548***		4.984**		.915	5.302**		1.808	1.515
혼인 상태	유배우(81)	8:17		7:03		1:14	5:49		3:02	2:47
	사별(39)	8:09		7:04		1:05	4:49		1:41	3:08
	t값	.232		-.022		.575	1.558		2.243*	-.636
가구 형태	노인단독(6)	11:23	b	10:06		1:17	5:39		1:25	4:14
	노인부부(37)	8:12	a	6:54		1:18	5:59		3:01	2:58
	자녀동거(73)	8:03	a	6:56		1:07	5:10		2:28	2:41
	조손자녀(4)	7:40	a	6:13		1:28	6:41		2:48	3:54
	F값	2.687+		2.012		.178	.668		.541	.728
건강 상태	장애·질병 유(75)	8:22		7:04		1:18	5:58		2:42	3:15
	장애·질병 무(36)	8:00		6:58		1:02	4:53		2:41	2:12
	t값	.627		.140		.887	1.642		.044	1.826+
주 작 목	미백(67)	8:29		7:16		1:13	5:13		2:09	3:04
	월예(13)	8:46		8:05		0:41	6:05		3:14	2:52
	과수(16)	7:42		6:29		1:13	6:05		2:12	3:53
	축산(20)	7:41		6:31		1:10	5:04		3:23	1:41
	F값	.750		.924		.447	.592		1.223	1.909

+ $p<.1$, * $p<.05$, ** $p<.01$, *** $p<.001$

3)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 검증을 위해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노인들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참여하며, 집안에서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이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노동시간이 더 긴 것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작업을 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작목에 따라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농가가 주작물이 다르기는 해도 특정 작물로 전문화되기 보다는 복합농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농촌 노인의 여가

1) 농촌 노인의 여가시간

만 65세 이상 농촌 노인의 여가생활 시간

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농촌노인들의 여가시간도 농번기와 농한기에 차이를 보였는데, 농업노동시간의 길이에 영향을 받아 농번기에는 적고 농한기에는 많았다. 농번기에 비해 농한기에 여가시간이 2시간 28분 늘어나는데 증가하는 여가시간의 양은 농한기에 줄어드는 농업노동시간 4시간 45분의 52% 수준이다. 여가활동 중 참여 및 봉사활동은 그 양도 적고, 절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에 여가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절기에 따른 차이가 컸다.

남녀로 나누어 여가시간을 분석해보면 참여 및 봉사활동은 남자의 경우 농번기 7분, 농한기 6분, 여자의 경우 농번기 12분, 농한기 7분으로 매우 적고,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에 교제 및 여가 활동 시간은 농

<표 4> 농촌 노인의 여가시간

시간: 분

행동분류		농촌 노인						전국 노인		
		농번기			농한기					
대분류	중분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참여 및 봉사활동		0:10	0:07	0:12	0:07	0:06	0:07	0:04	0:03	0:04
	이웃·친지 돕기	0:05	0:01	0:07	0:04	0:01	0:07	0:02	0:01	0:03
	참여활동	0:05	0:05	0:05	0:03	0:05	0:01	0:01	0:01	0:01
	자원봉사	0:01	0:01	0:00	0:00	0:00	0:00	0:01	0:01	0:00
교제 및 여가활동		3:58	4:01	3:56	6:29	6:58	6:08	7:01	7:38	6:36
	교제활동	0:41	0:33	0:47	1:40	1:40	1:40	1:08	1:02	1:13
	일반인의 학습	0:00	0:00	0:00	0:01	0:01	0:02	0:01	0:02	0:01
	미디어 이용	1:45	1:46	1:44	3:30	3:55	3:11	3:40	4:13	3:18
	종교활동	0:05	0:01	0:09	0:07	0:00	0:12	0:20	0:07	0:29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0:01	0:01	0:00	0:01	0:01	0:00	0:01	0:01	0:01
	스포츠 및 레저 활동	0:10	0:14	0:07	0:14	0:20	0:11	0:41	0:55	0:31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1:14	1:22	1:09	0:56	1:01	0:52	1:09	1:18	1:03
	기타 여가관련 행동	0:02	0:03	0:00	0:01	0:00	0:01	0:01	0:02	0:01
합 계		4:08	4:08	4:08	6:36	7:05	6:15	7:05	7:41	6:40

번기에 남자노인의 경우 4시간 1분, 여자노인은 3시간 56분인데, 농한기에는 남자노인은 6시간 58분, 여자 노인은 6시간 8분을 배분하여 농한기에 증가한 여가시간양이 남자노인은 2시간 57분, 여자노인은 2시간 12분으로 남자노인이 45분 더 컸다.

한편 농촌 노인의 여가시간을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시간과 비교해보면 전국의 남자 노인이 7시간 41분, 여자노인이 6시간 40분으로 나타나 농번기의 경우에는 농촌노인이 전국의 노인보다 남자의 경우에는 3시간 33분, 여자의 경우에는 2시간 32분 짧고, 농한기에도 농촌노인이 남자의 경우 36분, 여자의 경우 25분 짧게 나타났다. 이는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노인이 노동에 많은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인해 여가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가영역별로 보면 농촌노인은 주로 미디어 이용,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활동 등 세 가지 여가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 중 노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TV시청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이용으로 농번기에 남자노인은 전 여가시간의 42.7%, 여자노인은 41.9%를 배분하고 농한기에는 그 비중이 더 늘어나 각각 55.3%, 50.9%를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 미디어 이용 시간은 전국의 남자 노인 미디어 이용 시간 4시간 13분, 여자노인의 3시간 18분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미디어 이용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가활동은 농번기에는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이고 그 다음은 교제활동의 순서인데, 농한기에는 교제활동시간이 대폭 증가하여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보다 많아진다. 취미 및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영역은 ‘아무것도 안하고 쉬’이며 교제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영역은 ‘그 외 사람

들과의 교제’인 점을 고려할 때 농번기에는 농업노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제약을 받는 여가시간의 일부를 바쁜 농업노동으로 인해 생긴 피로를 휴식하는데 소비하는 반면, 농한기에는 농업노동의 감소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을 이웃이나 친구와 교제하는데 소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촌 노인은 농한기에 늘어난 여가시간을 TV시청과 이웃과의 교제활동 등에 배분하며 이러한 성향은 남녀 노인 모두에게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 밖에 농촌 남녀노인의 여가 특징으로 여자 노인의 경우 종교활동에, 남자 노인의 경우 스포츠 및 레저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농촌 노인의 여가 특성을 전국노인과 비교해보면 미디어 이용,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활동 등 세 가지 여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유사하나, 전국 노인이 농촌노인보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종교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특히 남자 노인에 있어서 스포츠 및 레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

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를 보면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 노동시간과는 달리 <표 5>에서 보듯이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밖에 성별, 학력, 혼인상태, 가구형태, 건강상태, 주작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에서 여가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농번기는 $p < .01$ 수준에서, 그리고 농한기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시

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인데, 연령대간의 차이를 보면 농번기에는 80세 이상 노인이 65-69세와 70-74세의 노인보다, 그

〈표 5〉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

구 분		시간: 분			
		농번기 여가시간		농한기 여가시간	
성별	남자(51)	4:08		7:05	
	여자(69)	4:08		6:15	
	t값	.009		1.369	
학력	무학(51)	4:13		6:45	
	초졸이상(69)	4:04		6:30	
	t값	.331		.415	
연령	65-69세(63)	3:21	a	5:44	a
	70-74세(24)	4:23	ab	6:10	a
	75-79세(23)	5:11	bc	9:01	b
	80세 이상(10)	6:03	c	7:38	ab
	F값	5.949**		7.014***	
혼인 상태	유배우(81)	3:58		6:19	
	사별(39)	4:29		7:11	
	t값	-1.056		-1.361	
가구 형태	노인단독(6)	2:51		7:03	
	노인부부(37)	4:25		6:27	
	자녀동거(73)	4:03		6:39	
	조손자녀(4)	4:56		6:26	
	F값	.821		.072	
건강 상태	장애· 질병 유(75)	4:20		6:29	
	장애· 질병 무(36)	3:54		6:52	
	t값	.851		-.574	
주작목	미땃(67)	4:02		6:50	
	원예(13)	2:47		5:33	
	과수(16)	5:01		5:57	
	축산(20)	4:18		7:07	
	F값	2.034		.981	

p<.01, *p<.001

리고 75-79세 노인이 65-69세 노인 보다 길었다. 농한기의 여가시간은 75-79세 노인이 가장 길었는데, 연령대간 차이는 80세 이상 노인은 다른 연령대 노인의 여가시간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데 반해, 75-79세 노인은 65-69세와 70-74세 노인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혼인상태나 주작목에 따라 여가시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그 차이가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가시간이 의무노동시간량 뿐 아니라 생리적 시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조사대상자 수의 적절성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농촌 남녀 노인의 노동과 여가 시간배분구조 비교

앞에서 농번기와 농한기로 나누어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노동과 여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노동과 여가시간에의 배분 구조를 살펴보고, 남녀노인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과 여가에 배분하는 시간양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남녀노인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수입노동시간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많으며 남녀노인간의 차이는 농번기에는 30분, 농한기에는 1시간 13분이다. 반면에 가사노동시간은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많아서 농번기에는 1시간 28분, 농한기에 2시간 1분의 차이가 난다. 수입노동시간은 남자노인이 많은 반면 가사노동은 여자노인이 많은데 그 차이가 가사노동의 경우에 더 크기 때문에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을 합친 총 노동시간은 여자노인이 남자

〈표 6〉 농촌 노인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및 비율

시간: 분(%)

구분	농촌노인				전국 노인	
	농번기		농한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총노동시간	7:42(65.1)	8:39(67.7)	4:55(41.0)	5:55(48.6)	3:24(30.7)	4:44(41.5)
수입노동시간	7:21(62.1)	6:51(53.5)	3:18(27.5)	2:05(17.1)	2:25(21.8)	1:32(13.4)
가사노동시간	0:21(3.0)	1:49(14.2)	1:37(13.5)	3:50(31.5)	0:59(8.9)	3:12(28.1)
여가시간	4:08(34.9)	4:08(32.3)	7:05(59.0)	6:15(51.4)	7:41(69.3)	6:40(58.5)
합계	11:50(100.0)	12:47(100.0)	11:59(100.0)	12:11(100.0)	11:05(100.0)	11:24(100.0)

노인보다 길며, 그 차이는 농번기에 57분, 농한기에 1시간이다.

전국 노인 평균시간을 보면 수입노동시간에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53분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2시간 13분 길며, 총노동시간에 있어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1시간 20분 길어 남녀 노인의 차이가 농촌 노인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농촌 노인의 여가시간을 보면 농번기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으나, 농한기에는 남자노인이 50분 더 길다. 전국 노인 여가시간의 남녀 차이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1시간 1분 길게 나타나 농한기 때의 농촌 노인의 남녀차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생활시간을 논의할 때는 절대적인 시간양도 중요하지만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비율이 중요한데, 이는 노동력의 소비와 노동력 재생산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노인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비율을 보면 농번기의 남자노인은 65:35인데 반해 여자노인은 68:32이고, 농한기에는 남자노인이 41:59인데 반해 여자노인은 49:51이다. 농번기에는 남녀 노인 모두 노동의 비중이 커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보다는 노동력을 소비하는데 시간이 편중되나, 농한기가 되면 남자노인은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여자노인은 노동과 여가시간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휴식이 요구되는 농한기라는 절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력 재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여가 대비 노동의 비율이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노동력 소비와 노동력 재생산의 불균형이 여자노인에게 더 심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국 노인의 노동과 여가의 비율을 보면 남자노인은 30:70, 여자노인은 40:60으로 여가의 비중이 노동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농촌 노인은 농한기의 남자노인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충분한 시간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여기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의 특성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농촌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남녀 모두 과도하게 많은 노동을 한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

이다. 이는 농업노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에도 해당되며, 특히 일반 노인들과 비교할 때 그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농촌 노인들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그들의 신체적 상황이나 건강조건과 관계없이, 농촌의 젊은 세대 부재, 경제적 필요성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적 특성 등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노년기의 노동이 노인의 삶에 주는 부정적 의미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시간의 농업노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의 위치는 보조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들의 농업노동이 재배 및 생산이나 수확 및 포장 등 일부 작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장시간 농업노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보조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농촌노인의 노동 만족감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농촌 노인의 긴 노동시간은 여가시간에 영향을 주어 농촌 노인의 여가시간은 일반 노인에 비해 작으며, 이는 농번기 뿐 아니라 농한기에도 그러하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반 노인보다 여가시간이 적은 농촌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농촌 노인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과 같은 미디어 이용에 보내고, 그 밖에 상당한 시간을 농번기에는 휴식하는데, 농한기에는 이웃과의 교제에 소비함으로써 여가 내용에 있어서도 소극적 내지 소모적인 여가에 편중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여가의 시간양이나 내용 면에서 볼 때 농촌노인의 삶의 질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농촌노인의 남녀 차이를 보면 남녀 노인 간의 시간격차가 노동시간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커서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여자노인이 더 길다. 그리고 남녀노인의 격차는 시간량보다는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의 균형을 보여주는 노동과 여가에의 시간 배분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노동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 보다 불균등한 시간배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농촌의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연령, 건강상태, 가구형태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농촌노인의 생활시간의 차이를 통해서도 농촌노인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즉 농촌 노인은 연령에 따라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차이를 보여,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증가한다. 특히 농번기에 비교적 젊은 노인인 65-69세의 수입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산업체 표준근로 시간인 8시간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노동의 대부분이 육체적으로 고된 농사일이란 점을 고려할 때 노동 강도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비해 여가 시간은 매우 적어 노동력 소비와 재생산의 불균형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하였다. 또한 고령 노인인 80세 이상 노인의 노동시간도 전국 노인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함으로써 농촌 노인의 노동부담이 모든 연령층에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에 따라 수입노동 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가사노동시간에서는 오히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이 더 길게 나타난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촌 노인들의 수입노동과 가사노동 참여는 질병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노동력을 그만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총노동시간이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가장 길게 나타난 결과도 취약농가인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결론과 관련하여 농촌 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노인의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노동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노인들의 노동시간의 감축을 어렵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농촌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배 및 생산이나 수확 및 포장에만 집중되어 있는 농촌 노인의 노동력을 판매 및 경영이나 농업교육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농업활동에 분산·투입하도록 하여 농촌 노인의 인적 자원을 증대시키는 것도 노동만족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로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감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극적이고 소모적인 여가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여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여가활동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농촌 여자 노인의 경우 노동력의 재생산의 불균형이 절기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자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방안이, 농업노동의 감소, 여가시간의 확보, 그리고 여가의 충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덧붙여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은 농촌에서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을 위해 자녀양육 지원이 필요하며,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인 대상의 교육 등 여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장애인 가족이나 독거노인 등의 노

동시간이 길게 나타난 점 등을 볼 때 농촌의 이러한 취약가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사일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제도나 가사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농어민연금이나 직접지불제도 등의 다양한 방식의 소득보장을 통해 과도한 농업노동 수행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무료급식서비스나 도시락배달사업 등의 시행 확대를 통해 식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는 집안일을 하는 데 편리하도록 주택개량을 지원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일지표를 통해 생활시간 배분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활시간 배분을 통해 삶의 질을 유추해보고자 하였으므로 생활시간배분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생활시간 조사와 동시에 해당가구의 생활만족도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시간배분과 생활만족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어떠한 생활영역에의 시간 배분이 생활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8월 28일

【참 고 문 헌】

- 1)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2) 김경미(1997). 농가의 가사분담실태와 생활

- 만족도. 농촌생활과학 19(1), 19-23.
- 3) 김애련, 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75-288.
 - 4) 김애순(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시그마프레스.
 - 5) 김익기(1999). 한국노인의 삶-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 6) 김진욱(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 7) 농림부(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 8)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5). 농촌·도시 노인의 삶의 질 비교분석.
 - 9) 농촌진흥청(1997). 농촌여성의 역할수행 및 지위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 10) 박미석(2002).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5), 133-146.
 - 11) _____. 이유리(2003).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37-48.
 - 12) 박숙자(1999). 노인의 소득활동,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사회문화연구소.
 - 13)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 14)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15)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원형중(1994). 여가활동참여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2), 90-104.
 - 17) 윤순덕, 한경혜(2004). 농촌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7.
 - 18) 이수애, 이경미(2002). 농촌지역 노인의 우울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209-226.
 - 19) 이정화, 한경혜(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209-238.
 - 20) 조희금, 홍두승, 이승미, 최윤지, 김유경(2006). 농업인 생활시간 분석을 위한 농업행동분류체계 표준화 방안 연구, 대한가정학회 59차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논문 발표.
 - 21) 통계청(2002).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22) _____.(2005). 2004 생활시간조사.
 -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7). 농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25)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26) Kelly, J.R. et al.(1987). Later life satisfaction :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s 9(3), 189-200.
 - 27) Kelly, J.R.(1993). Activity and aging : Staying involved in later lif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28) OECD(1982). The OECD of social indicators. Paris.